

'소상공인 살리기' 협력 강화

'진안군 민·관·공 협의체' 제1차 회의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진안군은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8일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안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지부,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진안연장산업단지협의회, 홍삼한방농공단지 협의회,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등 7개 민간단체와 진안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경제 불안 장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대외적 경제 여건 악화가 지역 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소상공인 희망터드림 특별보증'은 성실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



진안군은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8일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 2026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맡고 진안군과 전북자치도가 최대 5년간 3%의 이차보증을 지원하며, 관내 금융기관이 용자를 담당하는 사업이다. 4월 22일 기준 총 보증 규모 50억 원 중 36.1억 원(72.3%)이 상담 및 대출로 이어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4월 22

일부터 추진 중인 '중동 위기대응 특별보증' 사업을 공유하고, 중동 지역 경제 불안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업체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며, 문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063-430-8403~5)으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 점검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관내 건설현장 46지구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시설물 위험성평가 위험성이 결정된 50지구는 위험성 감소를 위해 안전시설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대 핵



심 안전수칙 이행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5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TBM

(Tool Box Meeting) 실시 철저 △신규·기존 근로자 작업 전 현장 돌리보기 △건설기계 작업 시 접근금지 및 신호수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이다.

위험성평가 200개소 시설물점검에 의해 위험성이 결정된 50개소는 긴급 조치는 1개월 이내, 안전헬스 등 안전시설 설치는 3개월 이내 완료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안전경고 표지판 등 안전 조치 이후 안전예산을 확보하여 최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중점 관리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산림치유·치유음식 결합 특별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산림치유를 활용한 힐링 문화 확산을 위해 '치유의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숲이 지닌 치유 효과에 건강한 식문화를 접목해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기획했으며 참가자들은 숲길을 걸

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산림치유 활동과 함께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치유음식 체험을 했다.

특히 치유음식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몸의 균형을 돕는 건강식을 만들고 시식하는 시간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숲 해설과 명상, 오감 체험 활동을 병행해 참가자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반디랜드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

무주 반디랜드 체험행사 '풍성'

어린이날 맞춤 체험·공연 다채... 5월 4일·25일 정상 운영

무주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반디랜드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행사 기간 관람객 편의를 위해 반디랜드 정기 휴무일인 5월 4일과 25일에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곤충박물관 상설체험실에서는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아쿠아존에서는 '무주의 강' 생태설명회와 먹이 주기 시연이 펼쳐진다.

반디별 천문과학관에서는 태양흑점 관측과 달 사진 찍기 등 천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색다른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반디랜드 광장에서 페이스페인팅과 클리커 열쇠고리 만들기, 양말북 도어벨 만들기, 커피박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미술 공연과 키다리 피에로 풍선 나눔 행사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곤충박물관 생태온실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나비 관찰 체험전'이 열려 나비의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에 이르는 완전 변태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반디랜드 내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에서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 특별 무료 이벤트가 신착순으로 진행된다. 은행 곤충 반지 만들기, 곤충화석 만들기, 곤충 보석 비즈 만들기, 곤충 포브 만들기, 모기 기피제 만들기, 자연물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무주반디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한국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호스피스 홍보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28일 보건소 강당에서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와 연계한 '2026년 찾아가는 호스피스 홍보교육: 바퀴 달린 호스피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말기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전인적 의료 서비스이다.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정여정 팀장이 강사로 나서 우리나라의 임종 현실을 짚고,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이상적인 임종'



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과 전인적 돌봄의 가치 △국내 호스피스 운영 현황 및 이용 특성 △호스피스 유형(입원형·가정형·지문형)과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비용 안내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다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등

진안군, '전북 고비살살' 어린이 뮤지컬 공연 성료

진안군은 29일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북 고비살살' 프로그램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진안문화원이 주관하여 마련됐다. 평소 대형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연은 진안 문화의 집 마미홀에서 열렸으며, 사전 예약 단계에서 정석 매진을 기록해 2회 공연으로 확대 운영됐다.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에 노래와 율동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이들은 주인공 두더지가 벌이를 찾아가는 과정에 몰입하며 공연을 즐겼다. 특히 공연 후반부에는 동물의 생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교육적 요소까지 더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지난 28일과 29일 무주상상반디숲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민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서는 정신건강 검사와 퍼스널 컬러 진단, 페이스오가, 소금빵 제빵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검사, 1대1 상담은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사가 직접 진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29일에는 공감·소통 간담회도 함께 열려 민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